사업성 불투명한 '돼지육가공사업'

나주시 업체 선정 특혜 의혹

市에선 자부담 능력 부족 불구 보조금 2억 지원

나주시가 사업성이 없어 타 자치단체가 포기한 '돼지 육가공 육성사업'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맡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돼지 육가공 육성사업'의 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돼지육가공 육성사업은 당초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담양의 모 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권을 반려한 데 이어 2순위 순천축협과 3순위 광양시 모 육가공 공장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으로, 나주시가 뒤늦게 뛰어들어 유치한 것이다.

그러나 A사는 이미 별도 목적으로 건축물을 50%가량 신축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자로 선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사업승인 이전에 이뤄진 자부담 행위는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해당 사업자로 A사를 선정, 보조금 2억원을 집행했으며 A사는 보조금 2억원을 지원 받은 뒤 완공한 건축물 등을 담보로 또다시 5억원의 채무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나주시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으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 25억원 가운데 도비와 시비로 4억원이 보조되고 연리 4%의 정책자금 14억 7천만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리 융자해주며 나머지 6억3천만원만 자기부담으로 추진된다.

때문에 막대한 보조금과 융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20억원대의 사업장을 소유하게 된 셈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채무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이 최근 해결돼 육가공육성 사업추진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허수아비만들기 체험장 순창군 유등면(면장 신삼철)은 잊혀져가는 옛 정취를 되살리고 추석 전후 고향방문 귀성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섬진강 체육공원에서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

음악 듣고 자란 친환경 유기농 쌀

'그린음악쌀'을 아시나요

강진 논정마을 15만평 재배 kg당 3천750원 고가에 팔려

강진군 신전면 논정마을 영동농장(대표 오경배)이 클래식과 우리 전통음악인 사물놀이 음악을 벼에게 들려주는 '그린음악농법'으로 고품질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다

그린음악농법은 작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돼 양분흡수가 촉진되고,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질뿐만 아니라 당도가 증가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신 농법.

영동농장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그린음악농법에 의하여 15만평 농장에서 유기농 4만6천평과 저농약 10만4천평의 면적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오고 있다.

이렇게 친환경으로 생산한 벼는 '그린음악쌀'이라는 자체브랜드로 시판하고 있으며 kg당 3천750원의 고가에 직거래 판매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경지정리 교부금 4억여원 12년간 방치

뒤늦게 땅 소유자 못찾아 난감

해남군 1,300여건 지급 못해

해남군이 주민들에게 지급해야할 청산금을 12년간 방치했다가 늑장 지급에 나섰으나 토지 소유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95년 준공한 산이면 회송리 1구 등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 주민들에게 지급할 교부금 115건 5천200만원을 비롯해 지난 12년간 14개 읍·면에서 1천300건에 4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11일 읍·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산금 집행에 나서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여러차례 바뀐데다 토지 소유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몇 백원일 정도로 소액인 돈을 받을 토지 소유자를 찾기 위해 호적 원본까지 뒤지는 등 애를 먹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해남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산 미집행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지역 단신/

전남 18곳 '산림습지' 생태계 조사

서부지방산림청 영암 국유림관리소(소장 전대원)는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올해 장성군을 시작으로 전남 8개 시·군 18개소에 대한 '산림습지'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다. 영암 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4일 성공적인 생태계 조사를 위해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식물조사팀과 전남대, 순천대 생태학관련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습지조사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보성군 노인선수단 국궁 개인전 우승

보성군(군수 정종해)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열렸던 제 1회 전남 노인복지건강대축제에서 국궁부문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3위, 그리고 에어로빅 장려상을 받았다.〈사진〉 이번 대축제에 보성군은 게이트볼, 장기, 국궁, 에어로빅 등 5개종목에 70여명이 참가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고흥군, 기업유치 활발… 3개社 투자의향

고흥군이 민선 4기 들어 기업유치를 위한 활발한 세일즈 행정을 펴고 있다.

군은 특히 지역적 특성을 살린 중·소형 조선소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투자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조선관련 기업체를 찾아나서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 3개 업체가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군은 또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 관련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2개 업체와 교섭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골프장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 건설의사를 밝힌 A사와 구체적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군수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부군수와 실·과·소장에게 과감하게 위임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취임식에서 밝힌 바 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저소득 노인 개안수술비용 마련

올해도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곡성군이 6년 연속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운동을 벌인다. 곡성 심청축제위원회와 곡성 청년회의소,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주관하는 이번 모금운동은 전남도내 거주 60세이상 시력저하 저소득 노인들의 개안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

모금기간은 20일부터 10월20일까지이며, 기부금이 모아지면 그 규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시각장애 노인을 선정, 도내 병·의원과 진료협약 체결을 한 후 개안시술을 하게 된다.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는 지난 2001년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2억 100여만원에 달하는 성금등을 접수, 도내 8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 당뇨성 망막증 등 개안시술을 실시했다.

심청 공양미 삼백석 모금계좌 농협(605089 - 56 - 103935 예금주 공양미삼백석 안기환), 우체국(500701 - 01 - 001595 (예금주 공양미 삼백석)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곡성 '심청축제' 개막

28일부터 섬진강 생태공원

곡성 '심청축제'가 오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청축제는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행사를 조화롭게 편성하고, 지난해에 인기가 없었던 34개 프로그램을 폐지·축소하는 등 새롭게 꾸며진다.

특히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옛날 농사일 체험을 비롯해 햇곡식 맛보기·전통두부 만들기 체험, 짚풀공예 전시체험, 솟대 만들기 체험 등 체험위주 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우리마을선 수입 소 못키웁니다"

담양 축산農 적극 반대로 수입업자 포기

담양에서 미국산 소를 키우려던 축산업자가 한우 축산업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뜻을 접었다.

지난달 말 담양군 한우협회는 담양군 무정면에서 축사를 운영중인 A씨가 미국산 소 45마리를 들여와 자신의 축사에서 키우려 한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접했다.

이에 한우협회 회원과 농민 40 여명은 수입 소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A씨의 축사가 있는 무정면 마을 입구에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루 만에 천막을 철거한 이들은 "수입 소가 들어올 경우 담양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축협과 군 관계자 등에도 설득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수차례 면담 끝에 결국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계획을 철회 했으며 한우협회 등은 수입업자에게 준 계약금 등 A씨가 안게 될 손해를 일부 보상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미국산 소가 들어올 경우 축산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권리를 내세워 소를 들여오려는 업자들을 노골적으로 막을 수도 없어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